

남원 효산콘도, 광주 업체에 낙찰

모기업 부도로 17년간 방치
낙찰금액 35억 1700만원
지난해 11월보다 8억원 올라
한달 내 잔금 납부시 매수 완료



효산콘도는 남원을 대표하는 관광숙박업소로 기능해왔으나 모기업의 부도로 인한 지방세 체납으로 2005년에 관광숙박업이 취소돼 폐건물로 방치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의 주요 현안사업인 효산콘도가 다시 한번 매각결정 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낙찰금액은 35억 1700만원으로 지난해 11월 21일에 매각결정 된 27억 3800만원보다 약 8억 높게 낙찰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 공매는 연초에 낙찰 취소 후 신속한 재공매 추진으로 2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입찰을 진행했으며 입찰 참여 전부터 여러 업체가 시장 면담을 요청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개찰결과 높은 관심에 힘입어 최종 4개 업체가 참여해 매각예정이 25억 6320만원보다 137.2%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됐다. 낙찰업체는 광주소재 건설업 법인으로 임차보증금 2억 5632만원을 제외한 잔금을 향후 30일 기간 안에 납부하면 매수가 완료되고 이후 폐건물로 방치된 효산콘도에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시장은 민선8기 시작 후 효산콘도 활성화를 주요 현안사업으로 선정하고 새로운 사업목적에 맞게 현실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요청했으며 도시사와의 면담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을 건의했다. 1991년 사용승인을 받은 효산콘도(지상 9층, 지하 2층, 객실 285호)는 남원을 대표하는 관광숙

박업소로 기능해왔으나 모기업의 부도로 인한 지방세 체납으로 2005년에 관광숙박업이 취소돼 폐건물로 방치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온 만큼 20년 가까이 방치되었던 효산콘도가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밝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심리불안 시민 대상 생애·주기별 마음 건강사업

정읍시가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마음 건강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심리적 건강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이를 돌볼 여유가 없어 고민이었던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로 경험할 수 있는 정신건강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의 심리 정서를 지원하고 건강성을 회복해 삶의 질을 향상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연령별, 특성별 정신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춰 자아 성장, 집단 심리극, 노인 정신건강, 우울, 불안, 불면 극복 등으로 분야를 나눠 진행한다. 또 지역사회 자원과 협업체 극단적 선택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과 자살예방 교육,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도 병행한다. 생애 주기별 마음 건강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정읍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심신이 지친 시민들의 일상적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장호마을 '어촌 체험·휴양 마을' 선정



고창군 상하면 장호리 일원이 해양수산부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에 선정됐다. 장호어촌마을 체험활동.

해수부 고도화사업... 국비 2억원
고창군 상하면 장호리 일원이 해양수산부 '어촌 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에 선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고창군 상하면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이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여건을 갖추고 있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체험장, 숙박

시설 등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만들어 체험객이 즐겁고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은 부족했던 숙박시설 건립과 탐방로 보수 등 기반시설 조성·개선을 통해, 체험객 편의성 및 해양치유를 더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윤준병 의원은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은 4km가 넘는 명사십리 백사장장의 환상적인 경관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다"라며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이 갖고 있는 자산과 천혜의 해양기후 및 경관을 활용한 특화마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교육청 '저탄소 채식의 날' 시범학교 운영

유·초·중·고·특수학교 희망 신청
주 2회 이상 채식 메뉴 제공

전북교육청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위해 '2023년 저탄소 채식의 날' 시범 학교를 운영한다. 이는 육류에 편중된 식생활로 비만·아토피·성조숙증·면역력 약화 등이 급증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채식 급식 운영으로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을 함양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 존중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저탄소 채식의 날 시범학교는 도내 단설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희망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선정된 학교들은 '저탄소 채식의 날'을 주 1회 운영하고, 기존 식단에 주 2회 이상 채식(과일) 메뉴를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또 육류와 육가공품 및 인스턴트 식품 등 탄소배출이 많은 가공품은 자제하고, 지역 식재료를 이

용한 채식 식단을 구성해 학생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탄소발생을 줄이는 나물, 조림, 찜 등 한국형 전통 식단의 요리 방법의 식단 구성을 권장할 방침이다. 또 교육청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채식 급식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환경생태교육도 추진한다. 특히 '채식 레시피 개발 TF팀'에서 개발한 저탄소 채식 식단 레시피도 제공하고, 학교 식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서기 전북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장은 "저탄소 채식 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해 학생 체질 개선 및 건강증진을 지원하겠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채식 급식은 물론 로컬 식재료 활용,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학교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소상공인에 카드수수료 최대 30만원

1인 2개 업체까지 지원

고창군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오는 7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카드수수료의 0.5% 기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등의 업종이 신청 대상이며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재보증제한업종은 제외된다. 또 1인 다수 업체 운영 시에는 2개 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

본이다. 전년도 총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소상공인 편의제공을 위해 군이 국제정보를 통해 일괄 확인할 예정으로 제출서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군에서는 접수 후 신청 자격과 매출액 등을 검토해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이 되는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등록비 지원

3억5000만원 투입

정읍시가 사람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올해 중성화 수술 사업, 등록비 지원 등 다양한 동물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정읍지역 반려동물의 수는 약 2만5000여 마리로 추정되고, 1~2인 가구의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3억5000만원을 투입해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과 반려동물 등록비를 지원한다. '마당 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은 마당 등 실외에서 풀어놓고 기르는 마당 개에 대해 중성화 수술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량은 450마리로 암컷은 1마리당 36만원, 수컷은 1마리당 16만원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업비 1억4000만원을 투입,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통해 시민과 조화로운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대상은 몸무게 2.5kg 이상 길고양이며, 올해 사업 규모는 700마리다.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비 3000만원을 투입해 반려동물 등록비도 지원한다. 주택·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1000마리를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비를 지원한다. 정읍시에 거주하는 반려견 소유 시민은 지역 내 6개 동물병원(마이펫, 다나, 제이에스, 조은, 대한, 우리)에 신청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혁신적인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